

임장기초신념

(臨場基礎信念)

임장이란

임장(臨場)과 장(場)

➤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매 순간 어떤 공간에 있게 된다.

- 임장(臨場): 어떤 공간에 있는다.
- 장(場): 몸이 머무르는 곳, 우리가 있는 공간

➔ 항상 어떤 장(場)에 임장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입장기 초신념의 중요성

어떤 태도로 장(場)에 임할 것인가?

➤ 습관적 입장

- 평소 몸에 익은 습관대로 장에 임하는 것

➔ 좋은 습관대로 임하면 바람직하지만, **미성숙한 습관으로 임하면 장의 조화를 깨뜨림**

입장기초신념의 중요성

어떤 태도로 장(場)에 임할 것인가?

➤ 의도적 입장

- 장의 조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임하는 것
- 습관적으로 장에 임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떤 태도로 그 자리에 임해야 할지 항상 생각해보아야 함

➔ 사유와 학습을 한 후에 그 장에 적절하게 임하도록 해야 함

장에 임하는 태도

임장기초신념

➤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 주인정신(主人精神)
 - ➔ 주인정신이 없는 사람과 주인정신이 있는 사람은 장에 임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음

장에 임하는 태도

주인정신의 중요성

➤ 참고하세요.

주인정신에 대한 심리학 관점

긍정조직이 부각되면서 **심리적 주인의식(Psychological ownership)**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경제적 보상을 통한 조직성과 향상 방안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소유감을 바탕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Pierce et al.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통상적으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주인의식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주인의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심리적 주인의식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 상태**로서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감에 관한 개인의 의식, 사고 및 신념을 나타낸다. 따라서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구성원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반드시 공식적, 물리적인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적 관점에서만 이득인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인에게 있어서도 **일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에 임하는 태도

임장기초신념

➤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 나는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 어떤 공간(장)에 임하든지 그 공간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의도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것

장에 임하는 태도

임장기초신념

-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 나는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 **주인인 내가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 우주의 주인인 나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공동체를, 내 나라를, 이 지구를, 나아가 무한 우주를 천국으로 만들리라!

손철

임장기초신념에서 출발한 삶은 믿어도 되는 인생이 된다.

삶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 체계입니다. 따라서 좋은 신념 체계는 좋은 삶을 만들어줍니다. “주인인 내가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라는 임장기초신념을 가진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말씨,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를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공간에서 매 순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어찌 천국을 멀리에서 찾겠습니까?